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와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

최용호**

【 차 례 】

- I. 미완의 문제
- II. 기호사각형 논쟁사: 사향 모델에서 이향 모델로
- III. '절대적 부재'의 지점
- IV. 기호사각형과 공간적 모델링
- V. 주체의 담화

국문초록

본 논문은 파리 학파 기호학의 방법론적 도구로서 그 효용성을 널리 인정받은 기호사각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 모델이 방법론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호사각형의 미결 문제, 즉 브레몽이 제기한 중립향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이어서 새로운 표상 방식이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타르트 학파의 공간적 모델링과의 접목 가능성을 점검된다. 로트만의 이른바 공간적 모델링은 문화 현상을 내부/외부, 중심/주변 등의 공간적 용어로 기술한 것이다. 풍타뉴는 『담화기호학』에서 기호사각형을 집합 모델로 새롭게 표상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표상 방식을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을 참조하여 그 문화기호학적 함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기호학 이론은 학제적인 대화를 통해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여러 기호학 이론들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쇠어 : 기호사각형, 중립향, 교차모순, 공간적 모델링, 문화기호학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학과

I. 미완의 문제

『기호학 언어 이론 이성 사전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에서 그레마스(Greimas)와 쿠르테스(Courtés)는 파리학파 기호학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기호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기호사각형으로 임의의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의미하고자 한다.¹⁾

‘기호사각형’에서 ‘사각형’은 시각적인 하나의 표상 방식에 해당한다. 위의 정의에 등장하는 ‘임의의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이라는 규정은 의미 분류와 생성에 관한 것으로 한 마디로 세미오시스, 즉 ‘기호사각형’의 ‘기호’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미오시스에 대한 또 다른 시각적 표상 방식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사각형을 다른 도형이나 그림으로 대체하고자함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기호사각형은 오늘날 텍스트 ‘안’뿐만 아니라 ‘밖’을 분석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한 표상 도구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방법론적으로 손색이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사각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²⁾ 여기서 굳이 또 다른 ‘시각적 표상’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별히 한 가지 문제, 여전히 미결의 상태로 남겨진 문제를 재조명하기 위해서이다. 잠시 앞서 인용한 기호학 용어 사전

1) Greimas et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m 1979(1993), p.5.

2) 최근 이른바 ‘대립 사각형(square of opposition)’을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세계학회가 스위스의 몬트뢰(2007)에서, 코스시카의 코르테(2010)에서, 레바논의 베이루트(2012)에서, 바티칸(2014)에서 개최되었다. 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기호학자, 신학자, 인지론자 등이 참가한 이 학회에서 논리사각형뿐만 아니라 기호사각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현재 5차 대회가 준비 중에 있다. 학회 정보와 관련하여 <http://www.square-of-opposition.org/square2014.html> 참조.

을 다시 참조해보자.

범주적 항들의 제 3차 산출. 미결로 남겨진 문제는 항들의 제 3차 산출의 문제이다. 사실 브뤼달의 비교 연구는 문법 범주를 분절하는 망 내부에, 반대 항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리고” 관계의 설정으로 도출된 복합항과 중립항이 존재함을 보여줬다. 말하자면 복합항은 반대 축($s_1 + s_2$)에 속한 항들의 결합이고 중립항은 하위 반대 축($-s_1 + -s_2$)에 속한 항들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몇몇 자연 언어들은 이를테면 구축 중인 두 항들 간의 지배 관계에 따라 긍정 복합항들과 부정 복합항들을 산출해내기도 한다.

그러한 항들의 성립 과정을 밝히고자하는 여러 해결책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가설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우리는 - 더 자세한, 더 많은 기술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 그 문제가 열려있음을 주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만큼 그 문제의 중요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³⁾

기호사각형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적인 지점은 복합항($s_1 + s_2$)과 중립항($-s_1 + -s_2$)이다.⁴⁾ 그레마스과 쿠르테스는 이 두 항 중에서 “중교적, 신화적, 시적 담화들이 각별히 범주적 복합항을 선호”⁵⁾하고 있다는 사실에

3) *Op.cit.*, p.32.

4) 중립항이든 복합항이든 기호사각형에서 미완의 상태로 남겨진 문제는 요컨대 하나의 항이나 범주가 아니라 무엇보다 두 항이나 두 범주 ‘사이(entre-deux)’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콘신쉬와 콘신쉬는 이 ‘사이’의 문제를 이른바 ‘제 3자 포함’의 원칙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가령 누군가 두 항 사이가 무엇인가 모호하고 후미지며 비어있고 막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안심해도 좋다. 왜냐하면 그곳에 기거하는 개념적인 제 3자 포함(tiers inclus conceptuel)이 중대한 인식론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원 논리에, 지배적인 비모순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둘 사이’를 회피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비단 일상의 삶에서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제 3자도 존재할 수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제 3자의 출현의 인식론적 가능성, 나아가 그것의 필연성이 바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Consinschi E. Et Consinschi M., *Essai de logique ternaire sémiotique et philosophique*, Peter Lang, 2009, p.1)

비모순율에 입각한 제 3자 배제의 원칙이 이원적이라면 제 3자 포함의 원칙은 삼원적이다. 두 항 사이에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존재한다. 여기서 제 3자는 일종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목한다. 복합항, 즉 반대항들 간의 결합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를테면 레비-스트로소스적 시각에서, 다시 말해 ‘신화적 중재’라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논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으며 그러한 만큼 그 중요성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의 문제는 이른바 중립항, 즉 $-s_1 + -s_2^{(6)}$ 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각형이라는 시각적 표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중부정, 이른바 교차모순의 지점은 위상학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가? 과연 중립항을 선호하는 담화는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유형의 담화인가? 1979년에 출간된 『사전』에서뿐만 아니라 1993년에 재출간된 『사전』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II. 기호사각형 논쟁사: 사항 모델에서 이항 모델로

기호사각형은 1968년 『예일 프랑스연구 *Yale French Studies*』에 실린 그레마스와 라스티에의 논문, 즉 「기호학적 제약의 상호작용(The Interaction of Semiotic Constraints)」에서 처음으로 그 이론적 윤곽이 드러난다. 2년 뒤 이 논문은 그레마스가 펴낸 『의미에 관하여 *Du sens*』에 재수록된다. 1979년에는 앞서 인용한 『사전』에 등재됨으로써 기호사각형은 소위 전문 용어로서 확고부동한 이론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최근 한 대답에서 라스티에는 하나의 모델이 확립되는 이러한 지성사적 계기

5) *Op.cit.*, p.32.

6) 진리사각형에서 복합항, 즉 존재(être)와 외양(paraître)의 결합은 ‘진리’로, 중립항, 즉 비존재와 비외양의 결합은 ‘거짓’으로 규정된다. 존재는 외양과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신화적으로 시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일치가 곧 진리 규정이다. 다시 말해 복합항은 규정적이다. 하지만 비존재와 비외양의 결합은 단순히 ‘거짓’이 아니다.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에 따르면 오히려 존재와 외양의 불일치가 거짓일 수는 있다. 존재도 아니고 외양도 아니라는 것은 모든 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지칭할 뿐이다. 요컨대 중립항은 탈규정적이다.

를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그레마스가 이 논문을 『의미에 관하여』에 재수록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가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브뢴달(Brøndal)의 범주와 더불어 재가공된 블랑셰(Blanché)의 논리 육각형의 완화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사각형은 기호학 구축 모델(modèle constitutionnel)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되며, 생성 모델의 절대적 기원이 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⁷⁾

라스티에가 보기에 기호사각형은 “지나치게 강한 모델”이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모든 곳에서 항상 같은 것을 보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뿐이다.⁸⁾ 반면 논리학자가 보기에 기호사각형은 엄밀함이 결여된 ‘약한’ 모델이다. 기호학자와 논리학자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각 차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1976년 네프 Nef가 편집 출간한 『의미의 기본 구조 *Structures élémentaires de la signification*』에서 본격적으로 기호사각형에 대한 논리학자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이른바 ‘반(反)사각형 동맹(coalition anti-carré)’이 결성된 것이다. 2009년 코신쉬(Cosinschi E.)와 코신쉬(Cosinschi M.)가 공저한 『기호학적 및 철학적 삼원 논리학 시론 *Essai de logique ternaire sémiotique et philosophique*』은 이러한 동맹의 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인식론적 모델로서 ‘사각형’ 대신에 ‘삼각형’이 제시되어 있다. 초창기 파리학과 기호학을 대변했던 전문 학술지인 『기호언어학 연구 그룹 보고서 *Bulletin du Groupe de Recherche sémio-linguistiques*』는 반사각형 동맹에 맞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1981년 기호사각형을 주제로 특집호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쟁의 결론은 요컨대 기호사각형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정식화된 소위 전통 논리학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7) <http://www.revue-texto.net/index.php?id=3053>

8) <http://www.revue-texto.net/index.php?id=3053>

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사각형이 명제의 진리 조건을 다룬 것이라면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은 의미의 기본 구조를 겨냥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진리치가 아니라 의미 분류와 생성이다. 이때부터 “논리학자의 몫은 논리학자에게, 기호학자의 몫은 기호학자에게”라는 성서적 경구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80년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호사각형과 관련된 결코 드물지 않은 논의는 이 모델에서 점차 논리학적 흔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흔적이란 크게 두 가지로, 합의 관계($-s_1/s_2$, $-s_2/s_1$)와 모순 관계($s_1/-s_1$, $s_2/-s_2$)가 그것이다. 첫째, 기호사각형에서 합의 관계는 ‘진리조건적(vériconditionnel)’⁹⁾이지 않다. 순수하게 논리적(logique)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모델에서 항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계적이며, 근본적으로 위상학적(topologique)¹⁰⁾이다. 둘째, 모순의 비중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디르가 바르게 지적한 바 있듯이 “모순, 특히 부정에 의한 모순은 메타언어적 허구이며 순수한 분석적 구성물”¹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비(非)-뜨거움, 비-인간은 언어 차원에서 검증된 어휘들이 아니다. 언어

9) 합의의 논리적 형식은 $\langle si\ p, q \rangle$ 로 표기되는데 이는 합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진리조건적임을 말해준다.

10) 프리토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 기호사각형이 위상학적 모델임을 역설한다.

- i) 기호사각형은 대립(oppositions)과 상호전제(présupposition)를 분절한다. 그런데 대립과 상호전제 개념은 기초적으로 (논리학적이 아닌) 위상학적인 ‘위치(position)’라는 기초 개념을 지시한다.
- ii) 대립은 연접(conjonctions)과 이접(disjonctions)을 작동시킨다. 그런데 연접과 이접 개념은 기초적으로 (논리학적이 아닌) 위상학적인 ‘접합(jonction)’ 개념을 지시한다.
- iii) 위상학적 본질에 속한 기초 개념들로서 위치와 접합 개념은 이상적 공간 속에서 위치화(localisation) 및 공(共)위치화(co-localisation)에 상응한다.
- iv) 분절로서 형식(엘름슬레우적 의미에서의 형식)은 한계(seuil) 체계(범주화)에 의한 이상적 공간의 차이화에 상응한다.
- v) 그와 같은 범주화가 순수하게 관계적 내용을, 다시 말해 위치적 가치를 지닌 단위들을 정의한다.”(Petito, *Physique du sens. De la théorie des singularités aux structures sémio-narrative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92, p.331)

11) Badir, “Contrariété et contradiction : un parcours sémiotique”, *Actes Sémiotiques. Numéro 117*, 2014, p.14.

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ibid.).¹²⁾ 이처럼 기호사각형은 논리학적 흔적의 소멸과 더불어 점차 위상학적이고 언어학적인 모델로 거듭난다.

사실 기호사각형은 단순히 항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들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간명한 폰타뉴의 설명을 인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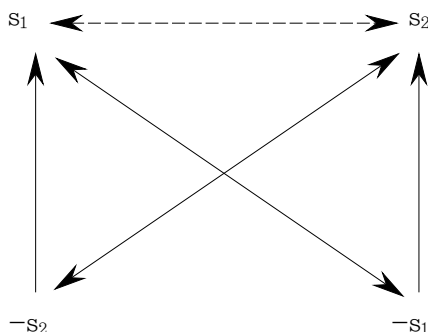
기호사각형은 이원 대립의 두 가지 유형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것이다. 이 체계는 반대 자질들의 동시적 현존을, 그리고 이 두 자질 각각의 현존과 부재를 동시에 주재한다.¹³⁾

여기서 이원 대립의 두 가지 유형이란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를 일컫는다. 이 두 관계가 통합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 것이 곧 기호사각형이다. 주지하다시피 반대 항들과 모순 항들은 함의 관계 덕분에 서로 연결된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논리학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이다.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바디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예일 프랑스연구』(1968)와 『기호학 언어 이론 이성 사전』(1979)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함의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방향이다. 전자에서는 함의 관계가 쌍방향의 화살표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후자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방향의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¹⁴⁾

12) 에노(Anne Hénault) 역시 반대 관계가 언어적이라면 모순 관계는 논리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녀에 따르면 “한 개념의 모순을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반대는 그렇지 않다. 사실 반대 관계는 그것이 덜 논리적이기 때문에 감각적 세계의 지각에 더욱 의존적이며, 각각의 자연 언어에 의해 제시된 실체의 분절이 드러내는 개인적 특이성에 더욱 연결되어 있다. ‘철’, ‘부표’, ‘삼각형’, ‘우표’ 등의 반의어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만 /철/의 집합에 대해 /비(非)철/의 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그것의 공통분모인 금속이라고 하는 보다 광범위한 집합의 하위집합으로 기능한다.”(Hénault,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uf, 1979, pp.129~130). 논리학적 모델과 달리 기호학적 모델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다.

13)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 M, 2003, p.57.

14) Greimas et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m 1979(1993), p.31.



함의 관계는 한편으로 s_1 과 $\neg s_2$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 $\neg s_1$ 과 s_2 사이에 존재한다. 68년과 70년 논문에서는 이 관계가 쌍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나 있어 완전히 대칭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위의 모델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다시 말해 부정항에서 긍정항으로 화살표 방향이 새롭게 확정됨에 따라 사각형의 대칭성에 모종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서사 논리학(Logique du récit)』(1973)에서 브레몽이 이미 지적했듯이 사실 논리적 관점에서 함의 관계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난함’과 ‘부함’이 반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자. 이때 논리적 관점에서 ‘부함’이 ‘비(非)가난함’을 함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레마스에 대한 브레몽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이 관계가 정향되어 있음을 강조하자. 즉, ‘부함’이 ‘비가난함’을 함의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이다. 물론 그레마스가 이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유형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그러한 만큼 그 방향성($S_1 \rightarrow S_2$ 혹은 $\neg S_2 \rightarrow S_1$)의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다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다.(주, p.137). 사실 그레마스는 자신의 선택을 감행하였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학적 선택이 아니다. 그는 마치 ‘비-부함’이 ‘가난함’을 함의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닌 것처럼 여러 관계들을 엮는다.¹⁵⁾

그레마스가 최종 선택한 화살표의 방향, ‘비부함’에서 ‘가난함’으로의 움직임, 부정향에서 긍정향으로의 정향은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종의 논리적 비약, 하나의 도약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도약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기호사각형은 논리사각형과 달리 이러한 도약이 가능한 모델이다. 다르게 말해 기호사각형이라는 ‘논리적’ 체계 안에는 흥미롭게도 비논리적 계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의미의 물리학. 단수성의 이론에서 기호-서사적 구조로(*Physique du sens. De la théorie des singularités aux structures sémio-narratives*)』에서 프티토는 흥미롭게도 르네 톰(René Thom)의 이론을 빌려 ‘기호학적’ 도약을 근본적으로 카타스트로프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카타스트로프는 “하나의 체계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돌발적으로 이행하는 체계의 장소이다. 비록 그 과정을 통제하는 외적 요인이 연속적으로 변할지라도 말이다.”¹⁶⁾ 요컨대 카타스트로프란 불연속적 현상을 설명하는 역동적인 연속적 모델이다. 예를 들어 ‘부함’과 ‘가난함’이라는 현격한 경제적 차이는 이를테면 ‘비부함’에서 ‘가난함’으로의 역동적인 일련의 연속적 움직임, 다시 말해 파산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카타스트로프 이론은 미세한 차이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연속적 움직임 속에서 모종의 질적인 변화,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결정적 계기, 즉 도약이 발생하는 이른바 분기점(bifurcation)을 위상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티토는 기호사각형이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카타스트로프의 실현”¹⁷⁾이라고 역설한다. 다른 아닌 위상학적 성질이 기호학적 관점과 논리학적 관점의 차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15) Bémond, *La logique du récit*, Editions du Seuil, 1973, p.93.

16) Espinoza M., “René Thom: de la théorie des catastrophes à la métaphysique”, in *Les mathématiques et le monde sensible*, Ellipse, 1997, p.3.

17) Petitot, *Physique du sens. De la théorie des singularités aux structures sémio-narrative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92, p.333.

-Y \rightarrow X라는 함의 관계의 역동적이고 통사적인 개념은 분명 모호하다. 사실 그것은 -Y와 -X라는 표기가 항들을 지칭한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호사각형은 지엽적 계열 체계로서 말하자면 사항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였을 터이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기호사각형은 이원적인 의소 범주를 ‘발전’시켜 실은 이항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상호전제의 관계를 ‘명시’하고 그 생성을 포함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명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약간의 해명을 요구한다.

우리가 기호학에서 지속적으로 논리학자의 관점을 거부하는 것은 특별히 그러한 관점이, X와 Y 두 항이 - 예를 들어, 질적 대립의 관계 R과 같은 -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R(X, Y)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라는 발화체가 ‘일의적(univoque)’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간주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진한 수리논리학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명증성은 구조적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cf. MS III 3.3.3), X/Y와 같은 구조적 관계의 본질적 유형은 논리적 관계의 유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위치적 본성을 지닌 구조적 관계는 ‘모호하게’ 정의되는데 이러한 모호성은 그 본성(질적 대립은 일의적으로 질적 대립이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전제 망을 어느 정도 명시하고, 표현하고, 펼치고,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레마스가 단언하듯 -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본질적인 그의 가장 심오한 기여 중의 하나인데 - 이러한 질적 대립과 같은 단순한 구조적 관계는 기호사각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진리 조건을 다루는, 다시 말해 진/위 판단을 위한 논리학적 관점은 항상 ‘일의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기호학적 관점은 구조적으로 ‘모호’하다. 여기서 ‘구조적’이란 ‘이원 대립적’일뿐만 아니라 ‘상호 전제적’임을

18) *Ibid.*, p.344.

뜻한다. 이를테면 반대, 모순, 함의 등의 관계들이 서로 구조적으로 얽혀 있어 상호 전제의 망을 형성한다. X/Y라는 이원 대립이 기호사각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논리적’이 아니라 이처럼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반대와 모순. 기호학적 도정(Contrariété et contradiction: un parcours sémiotique)」(2014)에서 바디르(Badir)는 “사실상 그리고 공인된 바 있듯이, 이 문제에서 기호학적 사유의 공급자는 논리학이 아니라 구조언어학”이라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기호사각형 논쟁사는 일정한 방향성을 띄고 전개되는 듯하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론적 강세가 드러날 수 있었다. 먼저 비대칭성이 점점 단호한 형태를 취한다. 이어, 배제적 관계보다는 참여적 관계로의 개방성이다. 끝으로 모순 관계보다도 반대 관계에 대한 선호이다.¹⁹⁾

이러한 삼중의 강세는 결국 사항 모델에서 이항 모델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프티토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Y와 -X라는 표기”가 사실상 “항들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사각형 모델에서 오직 X와 Y만이 항들로 남게 된다. -X와 -Y는 단지 이 두 항 사이의 ‘간격(intervalle)’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도의 차이만을 표시할 따름이다. 질베르베르그(Zilberberg)와 풍타뉴가 개발한 긴장도식(Schéma tensif)은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강도와 외연의 상관관계에 입각해 모델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디르는 ‘관계 모델’에서 ‘간격 모델’로의 이행,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기호사각형의 이론화에 의해 요청된 예측 가능한 전개임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레마스는 언어가 기호들의 체계가 아니라 관계들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적 개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

19) Badir, “Contrariété et contradiction : un parcours sémiotique”, *Actes Sémiotiques. Numéro 117*, 2014, p.14.

는 결과에 주목할 때, 질베르베르그는 차이에 대한 관계적 개념(x 와 y 는 상이하다 $x \text{ est différent de } y$)을 차라리 포기하고 오히려 외연적 개념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차이가 간격(x 는 y 와 상이화하다 $x \text{ diffère de } y$)에 의해 평가되는 이러한 본성에 대해 설파하기에 이른다. 간격은 그레마스가 의미의 구조에 대해 보장하려고 했던, 그러나 그것을 기호사각형에 기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역동성의 욕망에 부응한다.²⁰⁾

간격 모델에 따르면 ‘부합’과 ‘가난함’의 대립은 ‘부합’의 정도 차이로,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은 울퉁불퉁한 하나의 선분으로 표상될 수 있다.

부합	비부합	비가난함	가난함
s_1	s_2	s_3	s_4

위에서 중립항은 $\neg s_1$ 과 $\neg s_2$ 의 결합이 아니라 s_2 와 s_3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간격의 총합으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중립항은 ‘부합의 정도 차이’라는 의미의 축 위에 자리를 잡게 된다. 반면 복합항, 즉 부합과 가난함의 결합은 이 연속성의 계열에 포함될 수 없다. 의미론적 계열을 하나의 선으로 표상할 경우 선분의 양 극단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종교 담화에서 이 두 항이 결합한 경우, 즉 정신적으로 부하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에노에 따르면 “<부하면서 가난함>은 의미론적 범주의 변화를 그 대가로 일정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Anne Hénault 1979:129). 부합/가난함의 의미 축 자체가 양가적으로, 다시 말해 정신적 범주로도 물질적 범주로도 해석될 수 있을 때 복합항의 존재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연속성에 기반을 둔 간격 모델은 이러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계 모델에서는 중립항이, 간격 모델에

20) *Ibid.*, pp.13~14.

서는 복합항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중립항은 단지 선분의 정중앙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프티토의 말대로 하나의 항이 아니라면 -X와 -Y는 과연 어느 지점을 겨냥하는가?

Ⅲ. ‘절대적 부재’의 지점

다시 그레마스와 라스티에의 논문으로, 기호사각형의 기원으로, 기원의 기호사각형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아직 복합항과 중립항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S와 -S의 대립이 기호사각형의 기본 전제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 첫 포착의 차원에서 의미 S(그것의 총체성 속에서 의미하는 그러한 우주 혹은 임의의 기호학적 체계)가 하나의 의미론적 축으로 등장할 때 그것은 의미의 절대적 부재로 간주된, S 항의 모순인 -S와 대립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축 S(내용의 실질)가 의미의 형식적 층위에서 반대되는 두 의소들로 분절된다고 해보자.



이 두 의소는 각자의 모순 항을 포함한다.



하나의 의미는 오직 의미의 부재와의 대립 속에서 포착된다는 것이 그레마스와 라스티에의 현상학적 가설이다. 이를테면 의미론적 축 S는 항

21) Greimas et Rastier, “Les jeux des contraintes sémiotiques. En collaboration avec François Rasiter”, in *Du sens*, Editions du Seuil, 1970, p.136~137.

상 그것의 모순인 $\neg S$ 와의 대립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 모순이 ‘ s_1 ’이나 ‘ s_2 ’의 모순이 아니라 ‘ S ’의 모순임에 먼저 주목하자. 풍타뉴가 바르게 지적했듯이 모순이 항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항과 범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s_1 의 모순과 S 의 모순은 논리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색’이라는 하나의 의미론적 축이 존재한다고 하자. ‘빨강’은 이 축에 속한 하나의 요소이다. 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빨강’의 모순은 빨강이 아닌 모든 ‘것’이고, ‘색’의 모순은 색이 아닌 모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는 ‘빨강’이나 ‘색’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캔버스’는 ‘빨강’도 아니고 ‘색’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호사각형은 논리학적 모델이 아니다. 사항 모델을 이항 모델로 환원하고자 한 기호학자들의 시도는 모순의 이러한 논리적 역량을 반대 관계로 한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s_1 의 모순이 S 라는 의미론적 축 위에서 s_1 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이 가해진 것이다. 이를테면 ‘색’이라는 의미론적 축 위에서 ‘빨강’의 모순이 ‘빨강’이 아닌 모든 ‘색’을 지칭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s_1 의 모순은 ‘기호학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S 의 모순, 즉 $\neg S$ 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색’의 모순은 ‘색’이 아닌 모든 ‘것’인가? 위에서 그레마스와 라스티에는 $\neg S$ 를 ‘의미의 절대적 부재’로 상정한다. 이 ‘절대적 부재’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색’의 모순, 즉 ‘색’의 절대적 부재란 무엇을 뜻하는가? ‘색’이 아닌 모든 ‘것’이 진정 그 ‘부재’의 의미인가?

주지하다시피 $\neg S$ 는 하위 반대(subcontraires) 관계의 축을 형성한다. S 와 $\neg S$ 의 관계가 위계적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오직 논리학적으로만 타당하다. 유감스럽게도 ‘의미’와 ‘의미의 부재’ 사이에는 상위/하위라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논의에서 색의 ‘절대적 부재’는 ‘색’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색’이라는 하나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현상학적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S 의 ‘포착’ 조건이

-S인 것이다. 여기서 ‘포착’이 논리학이 아니라 현상학적 용어임에 주목하자. 『구조 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 이후 줄곧 그레마스의 배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아니라 메틀로 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이 존재한다. 현상학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항상 특정한 배경(*fond*) 하에서 지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배경 없이는 지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나의 형상(*figure*)으로는 포착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형상의 포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배경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미의 절대적 부재는 지각의 조건으로서의 배경에 다름 아니다. 흥미롭게도 형상으로 포착되던 것이 배경으로 물러날 수도 있고 배경으로 물러나 있던 것이 형상으로 포착될 수도 있다. 지각적 상황에서 이 둘의 관계는 항상 ‘시차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의 형상은 그것이 포착되는 배경 속으로, 말하자면 절대적 부재의 자리로 물러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포착 가능한 것이 된다. 다르게 말해 지각적 세미오시스(Seuiois)는 완결됨과 동시에 자신의 맹점을 드러낸다. 의미의 ‘절대적 부재’는 단순히 무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지각적 세미오시스의 완결성이 필연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미완결성이다. 프티토가 지적하듯, s_1 의 모순, 즉 $\neg s_1$ 이 s_2 로의 이행을 감행하기 위한 질적 도약, 즉 카타스트로프 지점이라고 한다면 S의 모순, 즉 -S는 이처럼 시스템 자체의 카타스트로프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S가 $\neg s_1$ 와 다른 점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철저하게 부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 내용도 담보하지 않은 카타스트로프가 -S이다. 소련 붕괴 이후의 예측 불가능한 세계상에 대한 다급하면서도 신중한 기호학적 성찰이 담겨 있는 『문화와 폭발』에서 로트만은 이러한 카타스트로프적 계기를 폭발이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한다. 물론 ‘의미의 절대적 부재’는 현상학적 포착의 조건이자 한계이다. 지각적 세미오시스의 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어 보자. 의미의 절대적 부재라는 정식이 지닌 문화기호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기호사각형을 문화기호학에 적용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물

음이 겨냥하는 것은 파리학파의 기호사각형과 타르투 학파의 공간적 모델링 사이의 뜻하지 않은 접점이다.

IV. 기호사각형과 공간적 모델링

앞서 살펴보았듯이 S와 -S의 대립은 순수하게 논리학적이라기보다 위상학적이고 현상학적이다. 파리학파의 기호학에서뿐만 아니라 타르투 학파의 기호학에서도 이른바 ‘세미오시스’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대립이다. 먼저, 앞서 인용한 그레마스와 라스티에의 텍스트를 로트만의 『문화와 폭발』 제 1장 「문제 설정」에 등장하는 다음의 텍스트와 대조해 보자.

모든 기호적 체계를 기술하는 데 따르는 근본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체계가 그것 외부, 즉 체계 외적인 세계와 맺는 관계이며, 두 번째는 정태성이 역동성과 맺는 관계이다. 후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체계는 어떻게 그 자신으로 남아 있는 동시에 변화·발전할 수 있는가?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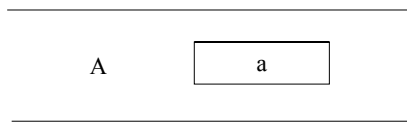
그레마스와 라스티에가 하나의 ‘의미’(S)를 그 ‘의미의 절대적 부재’(-S)와의 대립 속에서 포착하고자 한다면 로트만은 하나의 ‘기호적 체계’를 그 체계의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의미의 ‘부재’는 체계의 ‘외부’와 공명한다. 지각적 세미오시스에서 ‘부재’가 의미 생성의 역동성의 조건이라면, 문화적 세미오시스에서 ‘외부’는 체계 변화의 역동성의 조건이다. 김수환은 『사유하는 구조』에서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과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사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22) 유리 로트만, 『문화와 폭발』, 아카넷, 2014,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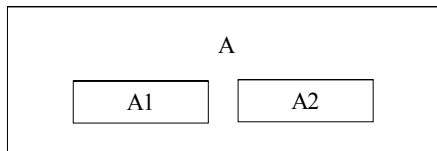
문화기술의 메타언어인 ‘공간적 모델링’이 나름의 문법적 질서를 갖는 일종의 ‘언어’로서 사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 그것은 가령 야콥슨의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이나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semiotic square)’ 모델과 마찬가지로, 의미의 구조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형식 체계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²³⁾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이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형식 체계라는 위의 주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보자. 우선, 시각적 표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성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담화 기호학』에서 폰타뉴는 S와 -S의 배타적 대립(opposition privative)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그림에 호소한다.²⁴⁾



위의 그림에서 a는 S에, A는 -S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을 집합 그림으로 이해할 때 A는 a의 여집합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S는 S의 여집합인 것이다. 계속해서 폰타뉴의 시각적 표상 방식을 따라가보자. 의미론적 축 S는 s₁과 s₂의 반대 관계로 정의된다. 폰타뉴는 이 관계를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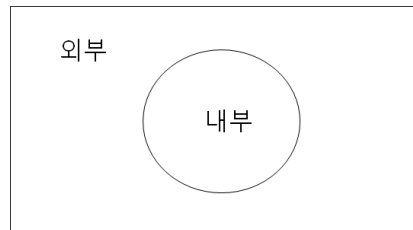


23)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12, 128쪽.

24) Fontanille, *Sémiotique du discours*. PULI M, 2003, 55쪽.

위의 그림에서 반대 관계는 A1와 A2의 대립으로 표현된다.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 A1과 A2만이 아니라 A1도 아니고 A2아닌 지점이 은근슬쩍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폰타뉴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설명을 부가하지 않는다. 기호사각형이 반대와 모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라고 할 때 앞의 그림과 위의 그림을 서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호사각형의 새로운 시각적 표상 방식과 관련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을 참조해보자.

로트만의 문화 기호학에서 문화는 세미오시스의 단위이다. 로트만은 이를 다음과 같이 공간적으로 모델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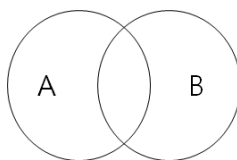


먼저 위의 공간적 모델링이 폰타뉴가 이른바 ‘배타적 대립’이라는 구조언어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그림과 상당히 유사함을 지적하자. 이를테면 ‘내부’가 ‘S’라면, ‘외부’는 내부와 배타적 대립 관계를 맺고 있는 ‘-S’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로트만은 이러한 형식적 정의에 만족하지 않는다. 내부와 외부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내부는 하나의 ‘기호적 체계’이다. 로트만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그것은 기호계(sémiosphère)에 해당한다. 외부는 단순히 모순항이 아니라 저 밖에 엄존하는 하나의 ‘세계’이다.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S와 -S라는 임의의 두 항 사이의 형식적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이 두 대립 - 내부 vs 외부, 현존 vs 부재 - 간의 비교 가능성을 폐기할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에서 내부(체계)와 외부(세계)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해 내부의 언어는 외부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로트만에 따르면 “핵심적 문제의 하나는 체계의 내용적 세계(체계의 내적 현실)를 언어 외부의 현실 세계로 번역하는 것이다.”²⁵⁾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번역적이다. 야콥슨은 이러한 번역을 기호 간 번역(traduction inter-sémiotiqu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에서 기호 간 번역은 항상 언어 간 번역(traduction inter-linguistique)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능하는 최소한의 구조는 각기 개별적으로는 결코 외적 세계를 담아낼 능력이 없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의 공존이다. 하지만 이 무능력 자체는 결점이 아닌 존재의 조건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타자(다른 인격,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필연성을 강제하기 때문이다.²⁶⁾

하나의 언어는 개별적으로 외적 세계를 담아낼 능력이 없다. 로트만은 이러한 무능력을 타자성의 존재론적 조건으로 삼는다. ‘내부’는 동질적인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이질적인 복수의 언어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복수성의 조건 하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언어 간 번역이다. 계속해서 야콥슨의 용어를 빌려보자. 로트만은 언어 간 번역 과정을 언어 내적 번역(traduction intra-linguistique) 과정으로 설명한다. 아래의 그림은 「단일 언어 체계」라는 제하의 글에 등장한다.²⁷⁾



25) 유리 로트만, 『문화와 폭발』. 아카넷, 2014, 9쪽.

26) 앞의 책, 9쪽.

27) 앞의 책,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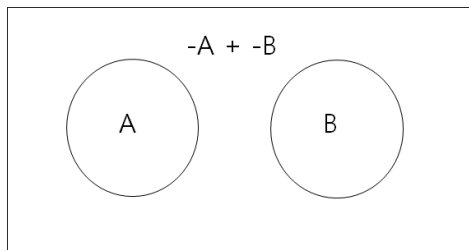
위에서 A와 B는 각각 화자와 청자를 가리킨다. 로트만은 이 모델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한다. 하나는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교차하지 않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서로 간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의례적이며 다소 진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반면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매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예술적 성격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에 해당한다. 정보 전달의 관점에서 후자의 유형이 전자의 유형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 언어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모델링한 위의 그림은 복수 언어 간 커뮤니케이션, 즉 언어 간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임의의 두 언어,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과 교차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전자가 이들 간의 번역 가능성을 보장한다면 후자는 번역 불가능성을 나타낸다. 문화적 관점에서 번역 가능한 것보다 번역 불가능한 것을 번역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언어 간 번역에서 본질적인 사태는 번역 불가능성이다.

이처럼 하나의 언어는 다른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의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만 외적 세계를 담아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번역 불가능성이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언어를 지닌 최상의 모델이라는 관념은 최소 둘 이상, 사실상 복수 언어의 무한정한 목록을 지니는 일정한 구조의 형상으로 바뀐다(이들 언어가 각기 고립된 채 세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들을 상호 간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들 언어는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면서 서로 겹치는가 하면, 또 ‘하나의 평면’에 배열되면서 내적 경계들을 형성하기도 한다. 언어 외적 세계와 그것

의 언어적 반영 사이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원천은 상이한 언어들 간의 이런 번역 불가능성(혹은 제한된 번역가능성)이다.²⁸⁾

예를 들어 두 개의 언어 A와 B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들이 서로 완벽하게 번역 가능하다면, 달리 말해 서로 완벽하게 포개진다면 사실상 하나의 (보편)언어만이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는 경험적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번역 불가능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두 언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림보다 완벽하게 불일치하는 그림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 세미오시스는 번역적이다. 언어와 세계 사이의 번역, 이른바 기호 간 번역은 항상 언어 간 번역에 의해 매개된다. 그런데 언어 간 번역의 근본적인 사태는 번역 불가능성이다. 결과적으로 기호 간 번역은 끊임없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긋남이 증언하는 것은 칸트의 물자체와 같은 초월적 외부성이 아니라 번역적 세미오시스에 의해 우선 처리되고 이후 남겨진, 위의 그림에서 $-A + -B$ 로 표기된, 잔여물로서의 외부성이다.

로트만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레마스의 의미론적 축은 복수언어주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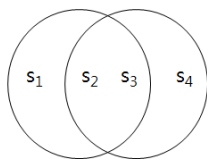
28) 앞의 책, 9~10쪽.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두 언어 A와 B는 말하자면 반대 관계²⁹⁾로 정의되는 두 항 s_1 과 s_2 에 상응한다. 이들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번역 불가능성이 존재한다. 위의 그림은 역설적으로 오직 이러한 불가능에 의해서만 가능한 외부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부, 잔여물로서의 외부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문화적 (혹은 번역적) 세미오시스는 공회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부, 맹점으로서의 외부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각적 세미오시스는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langle -A + -B \rangle$ 로 정식화된 바로 이곳에서 놀랍게도 파리학파의 거장 그레마스의 사유와 타루투 학파의 거장 로트만의 사유가 공명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해보자. 이 순수한 부정성의 공간을 지지하는 담화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V. 주체의 담화

기호사각형이 작동하는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 그레마스와 라스티에가 제시한 첫 번째 사례는 흥미롭게도 교통 신호등이다. 교통 신호등은 명령(injonction)이라는 S와 비명령(non-injonction)이라는 $-S$ 의 결합으로 이

29) 기호사각형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는 한 마디로 모순 관계를 반대 관계로 환원하려는 반(反)논리학적 움직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중립항을 연속적인 계열 속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이를 집합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행스럽게도 혹은 유감스럽게도 위의 그림에서 모순 관계가 들어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중립항, 즉 $-S$ 가 $\neg s_1$ 과 $\neg s_2$ 가 아니라 s_2 와 s_3 로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달리 말해 $-S$ 가 S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루어진 하나의 규칙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에노는 기호사각형이 적용될 수 있는 인간적 행위의 범주를 “입법적(légiférante), 제작적(fabricatrice), 정의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 행위” 등으로 세분하는데 교통 신호등은 입법적 범주에 해당한다.³⁰⁾ 이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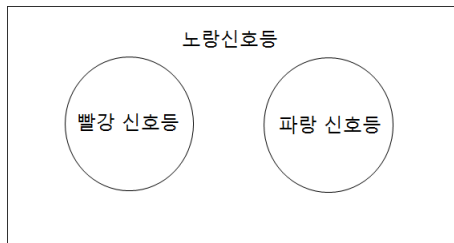
교통 신호등에서 파랑은 허용(즉, s_1)을, 빨강은 통행금지(즉, s_2)를 뜻한다. 노랑은 파랑 다음에 올 때에는 비허용을, 빨강 다음에 올 때에는 비금지를, 혼자서 작동할 때에는 $-s_1 + -s_2$ 를 뜻한다.³¹⁾

그레마스과 라스티에는 신호등 체계를 허용과 금지의 명령 체계로 규정한다. 이런 점에서 규칙 체계는 근본적으로 입법적이다. 이처럼 허용과 금지의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신호등의 기호 사각형은 포함(번역 가능성)과 배제(번역 불가능성)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나누는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이 인식론적 틀로 사용하는 공간적 모델링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노랑 신호등은 위에서 때론 비허용을, 때론 비금지를, 때론 비허용과 비금지를 동시에 뜻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문제는 노랑 신호등이 ‘혼자서 작동할 때’이다. 그레마스과 라스티에는 이때 노랑 신호등의 의미가 $<-s_1 + -s_2>$ 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s_1 + -s_2>$ 의 의미는 무엇인가? 『노랑 신호등』에서 제시한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노랑 신호등은 이때 단순히 비허용이나 비금지를 표시한다기보다 허용도 하지 않고 금지도 하지 않은 비결정의 순간, 다시 말해 명령 체계가 작동 중지되는 비명령의 순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노랑 신호등은 명령 체계, 즉 S 안에 기입된 비명령의 계기, 즉 -S인 것이다. 역설적으로 신호등 체계는 이 체계의 작동 중지를 표시하는 노랑 신호등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S, 즉 의미의 절대적 부

30) Hénault,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uf, 1979,, p.132-133.

31) Greimas et Rastier, “Les jeux des contraintes sémiotiques. En collaboration avec François Rasiter”, in *Du sens*, Editions du Seuil, 1970, p.141.

재는 단순히 S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S의 현상학적 포착 ‘내부’에 기입된 ‘외부’이다. 신호등 체계를 공간적으로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빨강 신호등과 파랑 신호등이 하나의 명령 체계, 곧 S라는 의미론적 축을 형성한다면 노랑 신호등은 이 명령 체계의 작동 중지를 나타내는 비(非)명령적 계기, 즉 -S를 표현하고 할 수 있다. 명령 체계가 비명령적 계기를 드러내는 바로 이 순간, 허용도 하지 않고 금지도 하지 않은 바로 이 순간 모든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의 몫으로 전이된다. 다르게 말해 노랑 신호등은 단지 체계의 작동 중지를 표지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체계 안에 기입된 주체성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슈미트가 언급한 주권성의 역설이 적용되는 자리도 바로 여기다. 기호사각형이 순수하게 논리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오히려 논리적 모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체계 안에 이 체계 자체에 대한 물음의 자리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S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이다. 이 자리를 지지하는 담화는 신화적인 것도 시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체적이다.

참고문헌

-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11.
- 유리 로트만, 『문화와 폭발』, 김수환 역, 아카넷, 2009.
- 최용호·신정아, 『노랑신호등 -포스트모던 비평의 지점』, 인간사랑, 2012.
- Badir S. « Contrariété et contradiction : un parcours sémiotique », *Actes Sémiotiques. Numéro 117*, 2014.
http://orbi.ulg.ac.be/bitstream/2268/170283/1/14_Badir_as_117_negation.pdf
- Bémond, *La logique du récit*, Editions du Seuil, 1973.
- Consinschi M. « Cartographie et géographie : approche épistémologique ternaire »
in *Geographica Helvetica Jg.63*. 2008/Heft 4, 2008.
- Cosinschi E. et Cosinschi M, *Essai de logique ternaire sémiotique et philosophique*. Peter Lang, 2009.
- Espinoza M., “René Thom: de la théorie des catastrophes à la métaphysique”,
in *Les mathématiques et le monde sensible*, Ellipse, 1997.
- Fontanille J. *Sémiotique du discours*. PULI M, 2003
- Greimas A. J. « Eléments d’une grammaire narrative », in *Du sens*. Paris :
Editions du Seuil, 1970.
- _____. Et Courtés J.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93
- _____, Rastier F., “Les jeux des contraintes sémiotiques. En
collaboration avec François Rastier”, in *Du sens*, Editions du Seuil, 1970.
- Hénault A., *Les enjeux de la sémiotique*, Puf, 1979.
- Petitot-Cocorda J. *Physique du sens. De la théorie des singularités aux structures sémio-narratives*. Paris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92.
- Rastier F. et Biglari A., Sur la sémiotique: rétrospections ou agenda. Entretien
avec A. Biglari. <http://www.revue-texto.net/index.php?id=3053>, 2014

Le problème non résolu du carré sémiotique et son implication sémiotique culturelle

Choi, Yong-Ho

Cet article prend pour objet d'étude les deux modèles sémiotiques : carré sémiotique et modélisation spatiale. Il vise à recadrer le premier suivant la dernière. Comme l'on le sait, le carré sémiotique qui a fait couler beaucoup d'encre dans l'histoire de la sémiotique française est considéré comme modèle constitutionnel et se révèle très puissant à tel point qu'il est applicable dans tous les phénomènes humains et sociaux. Même si c'est bien le cas, la discussion théorique n'est pas close en ce qui le concerne. Surtout le problème lié à ce que Brøndal appelle le terme neutre n'est pas réglé complètement. La présente étude se voudrait une tentative épistémologique de donner quelques éléments de réponse à cette question fondamentale. Elle consiste à recontextualiser le carré sémiotique dans le cadre de la sémiotique de la culture de Lotman. Pour ce faire, l'accent est mis sur l'homologie entre ce que Greimas appelle l'absence absolue de la signification et ce que Lotman appelle l'exteriorité. Voilà comment est mis en scène cette rencontre entre les deux écoles sémiotiques dans l'histoire de la sémiotique contemporaine : celui de Paris et celui de Tartu.

Key Words: mots cl, écarté sémiotique, terme neutre, double contradiction croisée, modélisation spatiale, sémiotique de la culture

투고일 : 2015. 08. 15. / 심사일 : 2015. 08. 30. / 심사완료일 : 2015. 09. 05.